

요약

실질가계소득은 '23년에 이어 24년 1/4분기에도 정체 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내수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. 다만,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~3분위의 실질소득이 증가했다는 점, 선택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'오락·문화'와 '음식·숙박' 항목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 등이 다소 긍정적인 상황임. 최근 수출 증가세 등 경기 회복 신호나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이 가계 경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

- 2024년 1/4분기 우리나라 가계는 경상기준으로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 모두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실질기준으로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내수 경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
 - 경상기준 2024년 1/4분기 우리나라 가계 소득은 월 평균 512.2만 원(처분가능소득 404.6만 원), 소비지출은 290.8만 원으로 나타나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.35%, 처분가능소득 1.38%, 소비지출 3.04% 증가함
 - 반면, 실질기준 2024년 1/4분기 우리나라 가계 소득은 월 평균 450.8만 원(처분가능소득 356.1만 원), 소비지출은 256.0만 원으로 나타나 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-1.60%, -1.57%를 기록하였으며, 소비지출 증가율도 0.04%로 나타나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
 - '23년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소득은 정체)되고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감소한 데 이어 24년 1/4분기에는 모두 감소세를 보이면서 내수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소비의 불황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음
 - 본고는 24년 1/4분기 가계 경제 변화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소득계층 간 불균형의 확대 여부, 선택적 소비 지출의 변화 등을 통해 가계소비 외형적 부진 속에 질적 성격 변화를 평가해 보고자 함

〈표 1〉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 추이

(단위: 월 평균 만 원)

구분	경상 기준			실질 기준		
	'22. 1/4	'23. 1/4	'24. 1/4	'22. 1/4	'23. 1/4	'24. 1/4
가계 소득	482.5(10.06)	505.4 (4.74)	512.2 (1.35)	457.5 (5.92)	458.2 (0.14)	450.8(-1.60)
비소비지출	96.5(10.50)	106.3(10.18)	107.6 (1.24)	91.5 (6.34)	96.3 (5.34)	94.7(-1.71)
처분가능소득	386.0 (9.96)	399.1 (3.38)	404.6 (1.38)	366.1 (5.82)	361.8(-1.16)	356.1(-1.57)
소비 지출	253.1 (4.66)	282.2(11.50)	290.8 (3.04)	240.0 (0.72)	255.9 (6.59)	256.0 (0.04)

주: ()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

자료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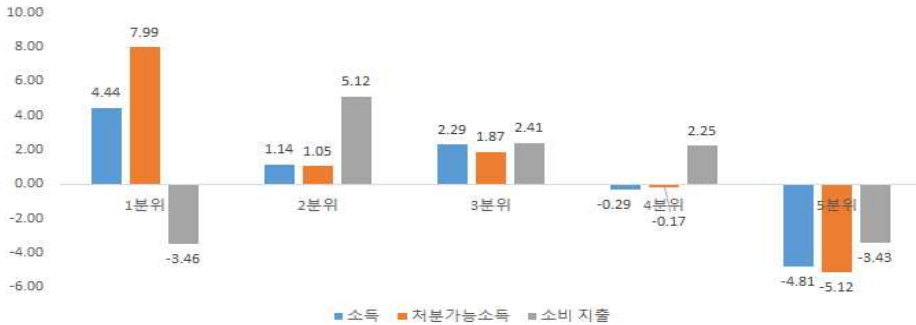
- 1) 「가계동향조사」는 소득의 연평균자료는 발표하고 있지 않아 분기 자료의 단순 합산을 바탕으로 전년비 증가율을 추정할 경우, '23년 1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전년비 -0.76%인 것으로 나타나 '23년에도 실질가계소득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음

○ 소득 5분위별 2024년 1/4분기 소득 변화를 파악해 보면,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은 감소하고 적은 계층은 증가하여 소득 분배 악화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- 소득 5분위별 2024년 1/4분기 실질소득(처분가능소득) 증가율을 보면 소득이 적은 1, 2, 3분위의 실질소득은 증가하고 4, 5분위의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 - 2024년 1/4분기 전체 실질가계소득은 감소했으나, 소득이 낮은 1분위(4.44%), 2분위(1.14%), 3분위(2.29%)는 증가하였으며, 4분위(-0.29%), 5분위(-4.81)는 감소하여 소득 격차는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
- 실질 소비의 경우 1분위(-3.46), 5분위(-3.43%)는 감소하고 2분위(5.12%), 3분위(2.41%), 4분위(2.25%)는 증가하여 소득과는 다소 다른 소득분위별 변화를 보였음²⁾

〈그림 1〉 소득분위별 소득 및 소비지출 변화

(단위: 전년동기 대비 %)



자료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

○ '24년 1/4분기의 항목별 소비 변화를 보면 선택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'오락·문화', '음식·숙박'³⁾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, 소비 구성의 변화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

- '24년 1/4분기 실질가계소비 중 '오락·문화'와 '음식·숙박'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7.92%, 1.95% 증가하여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'식품·비주류음료'(0.63%)에 비해 증가하는 성향을 보임
 - '오락 문화'의 경우 모든 소득분위에서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으며, '음식·숙박'의 경우 1, 3, 4분위에서는 감소하고 2, 5분위에서는 증가하는 엇갈리는 결과가 나타났음
- 필수적 소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면 선택적 소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, 우리나라 가계가 전반적으로 오락, 문화, 외식 등 선택적 소비를 축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식품 등 필수적 소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

2)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의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위에서 소비가 처분가능소득보다 더 증가하거나 덜 감소함에 따라 1분위(153.7→137.4)를 제외하고 2분위(84.9→88.3), 3분위(74.1→74.8), 4분위(71.2→72.9), 5분위(57.8→58.8)에서 모두 상승하는 등 소비성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3) '음식·숙박' 항목의 경우 필수재 성격인 식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성격의 외식을 포함하고 있어 필수적 소비라기 보다는 선택적 소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

〈그림 2〉 주요 소비항목별 실질소비지출 변화

(단위: 전년동기 대비 %)



자료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

- 실질 가계소득이 장기간 정체 및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수 기반에 매우 부정적인 만큼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 신호가 가계 부분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
 - 내수 기반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상황은 전체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소비 구성도 필수재 위주로 편성되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
 -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'24년 1/4분기 가계 경제 상황은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거나 필수적 소비 충족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
 -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소비 반등 효과가 '23년 중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'24년 이후의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, 투자, 생산 등 소득 창출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
 - 실질 경제성장률이 '23년 2/4분기 이후 회복세에 있고, 그동안 경제 성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수출도 3/4 분기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, 이러한 변화가 가계 경제의 회복세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
 - 다만, 설비투자, 건설투자 등 내수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변수들이 부진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

〈표 2〉 우리나라 국민 계정 주요 지표 변화 추이(2020년 기준 실질)

(단위: 전년동기 대비 %)

구분	'22. 3/4	'22. 4/4	'23. 1/4	'23. 2/4	'23. 3/4	'23. 4/4	'24. 1/4
GDP	3.41	1.13	1.11	0.98	1.40	2.09	3.27
최종소비지출	4.52	3.09	4.51	1.29	0.49	0.29	0.61
건설투자	-2.09	-2.57	1.70	1.67	4.32	-1.25	1.58
설비투자	4.77	4.78	4.71	3.76	-3.86	-0.21	-1.04
수출	5.39	-2.40	-1.10	0.90	3.16	11.39	9.07
수입	8.24	1.45	7.05	3.43	-0.22	3.90	-0.37

주: 최종소비지출은 가계 및 비영리법인 정부의 소비를 모두 합산한 것임

자료: 한국은행, 「국민계정」